제5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 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1] 검토 범위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129편), 박사학위논문(6편), 그리고 단행본 학술서적(14편)으로 총 149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2].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퇴계 이황(李滉, 退溪 1501~1570)에 관한 논문이 41편(전년도 기준 43편)으로 가장 많았고,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대한 논문이 20편(전년도 기준 22편)으로 뒤를 이었다. 퇴계와 율곡에 대한 논문은 전체 편수가 61개로 전년(2016, 65편)과 거의 동일하였고, 비율 면에서 전체 검색 논문의 대략 절반(약 45%)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퇴계와 율곡이 높

1 이 보고서는 대표저자 배제성 외에 부지훈 유한성 오진솔 이원준 이창규 등 5인이 함께 자료조사, 토론, 협의 등을 통하여 집필한 것임.

2 단행본 학술서의 경우 주제별 분류의 한 항목을 통해 따로 검토하였고, 여타의 인물별/주제별 분류의 목록 및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시 퇴계가 율곡에 비해 약 2배에 이르는 편수로 크게 앞서는 경향은 2014년도 이래의 동향 분석에서 일관되고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고봉 기대승(8편), 한주 이진상(6편), 다산 정약용(6편),[3] 남당 한원진(5편), 간재 전우(4편) 등에 대한 논문이 많은 편이었다. 이들에 대한 논문은 2015년 이래[4]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양이 발표되어 왔지만, 이진상의 경우 전년도(2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외암 이간(3편)에 대한 논문은 작년과 같은 양이 발표되었다. 반면, 우담 정시한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 6편이 발표되어 상당히 많았던 데 비해 올해에는 1편의 적은 수에 그쳤다. 또 2016년에는 정조(正祖)에 대한 논문이 특징적으로 많았던 데(5편) 비해 2017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 측면에서 정조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많았으나, 전년도와 달리 성리학이나 철학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암 김창협에 대한 연구(1편) 역시 전년인 2016년(3편)에 비해 감소한 모습이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가타오카 류	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 · ‘리동(理動)’ · ‘리도(理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강경현	천명(天命)에 대한 조선유학의 주목과 퇴계(退溪)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 다산에 대한 연구는 성리학과 유관성이 강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4 2014년 이래의 한국 유교 레포트 집계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강경현	퇴계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 · 리발(理發) · 리도(理到)”이해를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강보승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비교를 통한 朝鮮朝 陽明學의 未擴散원인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고승환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 – 形과 象개념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6	古賀崇雅	退溪學が傳えるもの」(WhattheScholarship ofLiTuiXiTellsUs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기현	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	대동철학 78	대동철학회
8	김낙진	退溪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9	김민재	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2015도덕과 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10	김봉진	삼원사고와 퇴계의 사단칠정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1	김성실	퇴계인성론의 토대로서 리발(理發)에 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2	김세정	퇴계이황 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3	김종성	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함의–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	김태오	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 가치	교육철학 64	한국교육철학회
15	김형찬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	김회숙	『성학십도』에 내재된 인성교육 연구	윤리교육연구 43	한국윤리교육학회
17	등경평	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18	林月惠	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 – 理發 – 理到」的理解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9	문석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0	박광수	퇴계(退溪)이황(李滉)의 경(敬)사상과 평화실천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1	서근식	퇴계이황(退溪李滉)의 「천명도설(天命圖說)」과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시작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22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3	손오규	퇴계시(退溪詩)의 공간인식(空間認識)과 산수관(山水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4	신태수	退溪『陶山雜詠』에 나타난 興趣生活과 生態論理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5	엄찬호	퇴계의 경사상과 『활인심방』에서의 마음치유	인문과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6	王國良	李退溪的道德倫理觀念與現當代精神文明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27	윤천근	퇴계 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28	이상익	주자(朱子)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9	이원진	키에르케고어와 퇴계(退溪)가 본 심병(心病)과 그 극복 – '순간(Øieblik)'과'경(敬)'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0	이정화	퇴계시(退溪詩)에 나타난 학주자(學朱子) 정신(精神)연구(研究)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31	李貞和	退溪詩를 통해 본 '學問'의 의미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2	이치억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철학적 기초로서 퇴계(退溪) 주리철학(主理哲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3	장승구	퇴계심학과 정신주의 철학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34	전세영	퇴계의 질병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5	정원재	「논사단칠정제삼서(論四端七情第三書)」의 재구성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6	조남욱	이퇴계의 인생철학과 그 현대적 수용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7	추제협	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영남학 60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8	추제협	장재의 「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9	황상희	퇴계사상의 종교성에 관하여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0	황상희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1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퇴계 이황에 관련된 연구는 41편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목록을 살펴보면 『퇴계학논집』, 퇴계학보, 퇴계학논총 등 퇴계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율곡에 대한 연구 또한 『율곡학연구』를 통해 다수 발표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고, 그 이외의 범위에 더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편수가 많은 만큼 연구 주제의 다양성 또한 두드러진다. 사단칠정론이나 그의 철학적 문제의식 이외에도, 수양론, 현대의 교육적 적용, 다양한 방식의 철학적 재해석, 예술적 · 종교적 접근, 비교철학적 연구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경세론에 관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2017년에는 두 편(김낙진, 성해준)이 포함되었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상익	주자(朱子)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	이상익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3	김낙진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4	김경호	공중누각과 율곡 이이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5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6	김윤경	북한의 율곡 연구 – 반동적 관념론자에서 선진적 사상가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7	김인규	이이(李珥) 학문관의 수양론적 함의 –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8	김지은	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 – 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9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0	서원혁	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 –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11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2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13	양방주	栗谷 李珥의 意 · 志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14	오철우	율곡의 성리학(性理學)과 선학(禪學)의 만남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15	이영경	栗谷의 人性敎育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16	이치억	기질의 문제로 본 퇴계와 율곡의 수양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7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정연수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9	지준호	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20	최보경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	용봉인문논총 5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율곡에 관련된 논문의 수는 20편으로 퇴계와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여타의 다른 인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퇴계와 마찬가지로 율곡에 대한 연구도 심성 · 이기 · 수양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세론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었다(퇴계: 0%, 율곡 : 약 35%). 이에 비해, 2017년도의 율곡 연구 중 경세론에 관련된 논문은 2편으로 퇴계와 수적으로 동일하며, 전체 율곡 관련 논문 내에서 경세론의 비중(10%)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퇴계 연구 중의 경세론 비율(약 5%)보다는 율곡의 비율(10%)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양론 및 교육론에 대한 논문은 7편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전체 수양론 및 교육론 논문 내에서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3) 고봉 기대승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2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도민재	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5	이기원	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6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7	이정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硏究)	한국사상과 문화 88	한국사상문화학회
8	홍성민	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고봉 기대승의 관한 논문이 8편 발표되었다. 기대승은 사칠 논변의 주체로서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온 편이라 할 수

있다. 2016년도에도 기대승에 대한 논문은 6편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7년도에 발표된 기대승에 대한 연구의 경향에서 전년도와는 차이가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된 기대승에 관한 6편의 논문 중 4편은 사칠 논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반면 2017년에는 사칠 논변에 관련된 논문은 1편(홍성민,「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에 불과하고, 다른 논문들은 그의 정치사상(권인호,「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수양론(김세정,「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예학(도민재,「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학(이기원,「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시(詩)(이정화,「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硏究)」)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한주 이진상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2	이향준	심즉리(心卽理)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의인화」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3	이원준	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4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5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6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 – 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한주 이진상에 대한 연구는 2015년 보고서에서는 6편이 포함되었으나, 2016년에는 2편으로 더 적은 수가 검색되었다. 2017년도에는 다시 6편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들은 대체로 그의 심즉리설(이향준, 이원준, 안유경)이나 사단칠정설(안유경, 이종우)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항로와 같은 조선 후기의 주요 학자들과 이진상의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심설논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추후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확장이 기대된다.

5) 다산 정약용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명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개념과 그 의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박광철	다산의 심성론 연구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德論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4	이애란	행사(行事)의 차원에서 바라본 다산의 권형(權衡)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이종우	다산 정약용의 사단칠정설 연구비판과 그것에 관한 원인분석	열상고전연구 58	열상고전연구회
6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 – 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다산 정약용은 주요하게는 실학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심성론에 한정하여 몇 편의 논문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성리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기질(氣質)을 중심으로 정약용과 주희를 비교한 논문이 있었고(노명수), 정약용의 심성론을 주제로 다룬 연구(박광철), 그리고 그의 사단

칠정설을 다룬 논문(이종우) 등이 있었다.

6)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현우	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3	단윤진	남당 한원진의 도론(道論)연구 –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4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5	안유경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2016년에도 8편으로 많았다. 호락논변의 미발 · 인물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경향도 일관되지만, 2017년에는 미발 문제에 집중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현우(「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김문준(「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단윤진(「남당 한원진의 도론(道論)연구 –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의 연구는 인물성 문제를 다룬 연구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현우는 인물성 논변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근대적 인간관의 차원에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 집중하였고, 김문준은 논변의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단윤진은 「경의기문록」을 중심으로 남당의 인물성론이 가지는 이론적 의미와 기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안유경은 두 편의 논문(「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에서 다른 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한원진의 사단칠정 · 인심도심설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7) 간재 전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4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92	동양철학연구회

간재 전우에 대한 연구 또한 2016(6편)년에 이어 비교적 많은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학자 중 하나이다. 곽신환은 이황 성리설에 대한 전우의 비판을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고, 유지웅은 전우의 심성론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윤경은 이진상과 전우를 비교하여 양명학에 대한 조선 성리학계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었다. 앞서 언급한 이진상과 더불어, 전우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성리학, 특히 심설논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하나	외암(巍巖) 심성일치(心性一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구조적 해명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배제성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4	이원석	이항로의 천주교 비판과 그 존재론적 기초	대동철학 79	대동철학회
5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6	추제협	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 영향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7	홍성민	李瀷과 愼後聃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철학연구 141	대한철학회
8	이영호	南軒學의 수용을 통해 본 寒岡學의 새로운 이해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9	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민족문화논총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0	박학래	旅軒張顯光의 學校敎育論과 그 道德敎育的 함의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11	안유경	여헌 장현광과 우암 송시열 사단칠정론의 비교 고찰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2	김태윤	'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3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	民族文化硏究 77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4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경우를 위주로 수록하였다. 외암 이간에 대한 논문

이 3편 발표되었다. 한원진과 마찬가지로 호락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연구의 폭은 남당보다 더 좁아 보인다. 이는 전년도에서도 발견되는 경향이다. 하나는 남당과 외암의 논변 과정에 주목하면서 외암의 심성일치의 주장의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고, 배제성은 조선 후기 명덕 논변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남당과 외암의 논쟁을 검토하였다. 화서 이항로에 대한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둘 다 이항로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에 주목하되, 이원석의 논문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안유경의 논문은 이진상의 사단칠정설과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이 밖에도 성호 이익,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우암 송시열에 대한 논문이 2편씩 발표되었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6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25편(약 19%)이다. 그리고 경세론 관련 논문은 14편으로 약 10%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40편(약 30%)으로 심성론과 더불어 단일 범주로서는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리학 관련 연구의 범위 자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과 방법론이 다변화되어가는 양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기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가타오카 류	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 · '리동(理動)' · '리도(理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강경현	천명(天命)에 대한 조선 유학의 주목과 퇴계(退溪) 해석의 철학사적 의의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3	강경현	퇴계 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 · 리발(理發) · 리도(理到)"이해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김성실	퇴계 인성론의 토대로서 리발(理發)에 관한 일고찰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태윤	'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6	등경평	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	퇴계학보141	퇴계학연구원
7	林月惠	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 – 理發 – 理到」的理解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8	서원혁	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 – 호락논쟁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9	안유경	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0	이원준	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천승	노사 기정진의 '卽氣觀理'에 기초한 理 중시적 사유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12	이치억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철학적 기초로서 퇴계(退溪)주리철학(主理哲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이향준	심즉리(心卽理)의 출현 –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4	조성산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	민족문화연구 77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5	추제협	장재의 「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황상희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성리학에서 이기론과 심성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기론의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이기론적 명제나 주장이 명확하게 부각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발(理發)·이도(理到)·이동(理動) 등 이기론에 관한 중요한 화두를 제시한 퇴계 이황의 연구는 이기론 측면에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기론에 대한 전체 16편의 논문 중 이황을 다룬 논문은 9편으로 56%에 이른다. 이는 전체 논문에서의 비율(31%)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심즉리설을 주창한 한주 이진상(3편)의 연구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타오카 류(「공시적 관점에서 본 이퇴계의 '리발(理発)'·'리동(理動)'·'리도(理到)'」), 강경현(「퇴계 이황의 리(理)에 대한 해석의 갈래 – "리동(理動)·리발(理發)·리도(理到)"이해를 중심으로 – 」), 황상희(「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 등은 퇴계철학의 제 명제를 그의 '理'에 대한 관념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추제협(「장재의 「서명」에 대한 이황의 독법, 구인지학(求仁之學) –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은 『西銘』 가운데 '민오동포(民吾同胞)'를 '이일분수(理一分殊)'로 해석한 정·주의 독법을 퇴계가 수용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안유경(「율곡의 '心是氣'와 한주의 '心卽理'의 대비적 고찰」)은 율곡과 한주의 '心'에 대한 이기론적 정의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발

표하였다. 이원준(「이도설(理到說)에 대한 견해를 통해 본 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의 '리(理)' 개념」)은 한주의 간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퇴계의 이도설(理到說)과 물격설(物格說)에 대한 한주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점이 그의 심즉리설(心卽理說)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했다. 서원혁(「율곡 이통기국의 영향 고찰-호락논쟁을 중심으로-」)은 율곡의 이통기국의 명제를 중심으로 호락논쟁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기론에서는 '이도'나 '심즉리', '이통기국' 등의 명제를 중심 축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향준(「심즉리(心卽理)의 출현 –「존재의 대연쇄」와 「의인화」를 중심으로–」) 또한 '심즉리'라는 명제에 주목하였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별성이 있다. 그는 그동안 '은유', '상징' 등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는 방법론으로 사단칠정논변, 호락논변 등의 내용을 재해석해 왔는데, 그 범위가 조선 후기의 한주 이진상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성산은 낙론 계열 학자인 백수 양응수의 화담학 인식을 통해 본연지기(本然之氣)를 강조한 낙론계 사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밝혔다. 이치억은 퇴계의 철학을 대동사회라는 기조와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주리(主理)라는 표현이 다카하시 도루의 주리/주기 구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리(理)를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태윤(「'허즉기(虛卽氣)'로 본 화담(花潭)의 사유구조 연구」)은 서경덕이 주자학의 소이연(所以然)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장재의 기론(氣論), 즉 허즉기(虛卽氣)를 차용하여 본체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천승(「노사 기정진의 '卽氣觀理'에 기초한 理 중시적 사유」)은

노사 기정진의 성리학설에서 강조한 리(理)의 함의가 결과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노사가 강조한 리 중시란 결국 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임월혜(臺灣李退溪研究的特點以及關於「理動 – 理發 – 理到」的理解)는 퇴계 이황에 대한 대만 학술계의 연구사와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주로 모종삼의 관점을 바탕으로 리(理)의 능동성을 중심으로 탐구해 온 연구 경향을 소개하고, 이후 한국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등경평의 논문(「황간(黃幹)사상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수용」)은 퇴계가 면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기호발(理氣互發)의 관점을 형성하였고, 특히 '극(極)'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해석하고자 했던 면재의 유비적 방식이 퇴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2) 심성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고승환	퇴계의 「心無體用辯」에 대한 분석 – 形과 象개념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	곽신환	전우의 이황 성리설에 대한 비판적 해석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기현	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	『대동철학』 78	대동철학회
4	김낙진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5	김문준	조선후기 인물성론의 인간학적 가치 – 한원진과 이간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85	한국동서철학회
6	김봉진	삼원사고와 퇴계의 사단칠정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7	김승영	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	동서철학연구 86	한국동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8	김지은	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 – 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9	김현우	남당 성삼층설의 논리체계와 근대적 인문정신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김형찬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	노명수	다산과 주희의 '기질(氣質)'개념과 그 의미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단윤진	남당한원진의 도론(道論) 연구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중용」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34	(사)율곡연구원
13	박광철	다산의 심성론 연구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14	배제성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15	서근식	퇴계 이황(退溪李滉)의 「천명도설(天命圖說)」과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의 시작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안유경	한주 이진상과 화서 이항로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영남학 63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7	안유경	율곡 이이와 남당 한원진 인심도심설의 대비적 고찰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18	안유경	여헌 장현광과 우암 송시열 사단칠정론의 비교 고찰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19	안유경	순암 안정복과 남당 한원진 사단칠정론의 대비적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20	양방주	栗谷 李珥의 意 · 志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 철학과
21	오수록	다산 정약용의 실천적 德論 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22	유지웅	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 왜 심인가?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3	유지웅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심론 – 기호 낙론에 유의하여 –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유지웅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25	유지웅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6	이상익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7	이상익	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 · 율(栗)성리학(性理學)	영남학 62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8	이선열	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29	이애란	행사(行事)의 차원에서 바라본 다산의 권형(權衡)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30	이종우	다산 정약용의 사단칠정설 연구비판과 그것에 관한 원인 분석	열상고전연구 58	열상고전연구회
31	이종우	정약용과 이진상의 공칠정설 비교－이익의 영향과 관련하여－	열상고전연구 56	열상고전연구회
32	이창규	주희(朱熹) 지각론(知覺論)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창협 지각론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3	장승구	퇴계심학과 정신주의 철학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34	정원재	「논사단칠정제삼서(論四端七情第三書)」의 재구성	퇴계학보 142	퇴계학연구원
35	최보경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	용봉인문논총 5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6	하나	외암(巍巖) 심성일치(心性一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구조적 해명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7	허광호	주돈이와 권근의 천인합일사상 비교－『태극도설』과 『입학도설』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38	홍성민	李瀷과 愼後聃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철학연구 141	대한철학회
39	홍성민	高峰 奇大升의 四七論에서 中節의 의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40	황상희	퇴계사상의 종교성에 관하여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심성론은 성리학 이론의 실질적인 중추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될 수 있다. 심성론에 포함된 논문은 총 40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김지은(「율곡 도덕 감정론의 지각 기제－율곡의 '성의(誠意)'를 중심으로」)이나 김승영(「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 박광철(「다산의 심성론 연구－

「心性總義」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처럼 심성론 자체를 설명하는 것을 표방하는 연구도 있지만, 심성론을 토대로 사칠논변이나 호락논변과 구체적인 쟁점과 문제의식을 다루는 연구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심성론에 포함된 연구 중, 총 13편(김낙진, 김봉진, 서근식, 안유경 [4편], 이상익[「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 이종우 [2편], 정원재, 홍성민 [2편])의 논문이 사단칠정설, 혹은 인심도심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형찬(「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과 이상익(「주자(朱子)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의 양면성과 퇴(退)·율(栗)성리학(性理學)」)의 논문 또한 이에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이 중 김낙진(「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의 논문은 사칠론(四七論)의 주요 개념인 소종래(所從來)를 통한 이기분속(理氣分屬)의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원전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아울러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의 유기적 연결을 잘 드러내었다. 김봉진은 삼원 사고라는 관점에서 퇴계의 사칠론을 다루었다. 그는 성리학자들이 불리(不離)와 부잡(不雜)을 모두 염두에 둔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 착안해서 다카하시 도루의 주리/주기 구분을 비판하였다. 서근식은 천명도설을 중심으로 사단칠정논변이 발생하게 된 시점의 경위와 양상을 검토하였다. 안유경은 이진상, 이항로, 이이, 한원진, 안정복, 장현광, 송시열 등의 사단칠정설과 인심도심설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논문을 4편 발표하였다. 이상익(「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대한 재검토」)은 율곡 인심도심설이 가지는 이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종우는 정약용의 사단칠정설을 다루는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진상과의 비교도 시

도하였다. 홍성민은 그동안 중절 개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2017년에도 각각 기대승과 이익 · 신후담을 중심으로 중절 개념을 분석한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형찬(「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 퇴계의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은 성리학의 구조적 틀에서 도덕감정과 도덕본성의 관계성을 기술한 후, 이것이 사단칠정논변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으며, 이발(理發)에서 부딪친 이론적 난제가 이도(理到)를 통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퇴계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있다.

호락 논변에 관련된 논문은 총 5편(김문준, 김현우, 단윤진, 배제성, 하나)이다. 이 논문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유지웅이 발표한 4편의 논문(「기호학파 낙론계 명덕설 – 왜 심인가?–」,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심론 – 기호 낙론에 유의하여–」, 「간재 전우 성리설의 문제의식」, 「간재 전우는 왜 심본성(心本性), 성사심제(性師心弟)를 말하였는가?」) 또한 호 · 락 중 낙론계의 심성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관성이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승영(「여호 박필주의 성리설에 관한 연구」)의 논문도 낙학계의 주요 학자 중 하나로 분류되는 여호 박필주에 대한 연구이므로 연관성이 있다. 추후 조선 후기 기호학과 호 · 락 학파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심화 ·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발을 주제로 하는 연구도 3편 있었다. 김기현(「주자학의 관점에서 본 퇴계의 미발론(未發論)」)은 '퇴계의 미발론' 논쟁에서 촉발된 이래 10여 년 동안에 '미발' 관련 연구들이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현상을 지적하며, 주자학의 기본적인 관점에 기반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선열(「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의 논문은 박상현과 한원

진, 송시열과 이현익을 중심으로 율곡학파의 '중화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7~18세기 호-락의 분기 요인이 된 미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도출하고 있다. 최보경(「'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이해 」)은 미발지중(未發之中)'에 대한 나흠순과 율곡의 해석을 통하여 두 학자의 수양론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창규(「주희(朱熹) 지각론(知覺論)과의 비교를 통해 본 김창협 지각론」)는 주희의 지각론과 비교함으로써 주재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한 김창협 지각론의 특징과 문제의식을 고찰하였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민재	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5 도덕과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	김태오	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 가치	교육철학 64	한국교육철학회
3	김회숙	『성학십도』에 내재된 인성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43	한국윤리교육학회
4	박학래	旅軒張顯光의 學校敎育論과 그 道德敎育的 함의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5	이영경	栗谷의 人性敎育論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6	정연수	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정연수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8	지준호	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유교사상문화연구 67	한국유교학회
9	강보승	退溪와 陽明의 修養論 비교를 통한 朝鮮朝陽明學의 未擴散 원인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강보승	정암 조광조의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55	한국철학사연구회
11	古賀崇雅	退溪學が傳えるもの(WhattheScholarshipofLiTuiXiTellsUs)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2	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김승영	녹문 임성주 수양론의 체계와 특징	동서철학연구 83	한국동서철학회
14	김원준	격치를 통한 율곡 독서방법론의 확장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15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김인규	이이(李珥) 학문관의 수양론적 함의 –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중심으로 –	온지논총 53	온지학회
17	안유경	대산 이상정의 『敬齋箴集說』 속에 보이는 敬의 내용과 이론적 구조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18	엄찬호	퇴계의 경사상과 『활인심방』에서의 마음치유	인문과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	이원진	키에르케고어와 퇴계(退溪)가 본 심병(心病)과 그 극복 – '순간(Øieblik)'과'경(敬)'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1	李貞和	退溪詩를 통해 본 '學問'의 의미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2	이치억	기질의 문제로 본 퇴계와 율곡의 수양론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23	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민족문화논총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	한정길	마음수양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성찰 보고서: 『국역 심경 주해총람』(상 · 하)	역사와실학 62	역사실학회
25	진보성	南冥 曺植의 수양과 실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수양론과 교육론은, 전자가 성리학의 고유한 주제로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비해 후자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다양한 맥락과 강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현대의 교육론에 적용

될 때 이러한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또 교육론으로 적용되는 성리학의 내용이 반드시 수양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후자는 전자의 응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밀접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두 범주를 하나로 통합하여 검토하였다. 수양론 및 교육론 관련 논문은 총 25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양론에 해당하는 것이 17편, 교육론에 해당하는 것이 8편이었다.

이 중에서 이황을 다룬 논문이 8편(32%), 이이를 다룬 논문이 7편(27%)으로 양자의 합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했다. 물론 이런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작다. 2016년도 수양론 및 교육론에서 이황과 이이에 관한 논문의 비율은 무려 72%였고, 이황을 다룬 논문만으로도 절반을 넘겼다(52%). 이러한 변화는 이황 논문의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이의 경우 논문의 수는 전년도와 같았고,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졌기(21%→27%) 때문이다. 이황 관련 논문이 2016년도에 비해 감소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16년도에 영남퇴계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퇴계학논집 19집이 2016년 10월 22일 영남대학교에서 '퇴계학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54회 퇴계학연구원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련된 이황 관련 논문의 비중이 2017년에 감소했다기 보다는, 2016년도에 증가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외에는 기대승에 대한 논문이 두 편(김세정, 「양명심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 기대승의 수양론」, 이동건, 「『논사록(論思錄)』을 통해 본 고봉(高峰)의 도학정신(道學精神)」) 있었고, 장현광(박학래, 「旅軒 張顯光의 學校敎育論과 그 道德敎育的 함의」), 정구(정병석, 「『心經發揮』를 통해 본

鄭逑의 心學」), 임성주(김승영, 「녹문 임성주 수양론의 체계와 특징」), 조광조(강보승, 「정암 조광조의 공부론」), 조식(진보성, 「南冥 曺植의 수양과 실천 연구」) 등을 다룬 논문이 한 편씩 있었다. 이처럼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여타 몇 몇 학자들에 관한 논문이 한 편씩 발표된 상황은 2016년과 거의 유사하다.

내용적으로는 인성 · 도덕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재(「퇴계의 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5 도덕과교육과정의 '도덕함':『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김회숙(「퇴계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가치」), 박학래(「旅軒張顯光의 學校教育論과 그 道德教育的 함의」), 이영경(「栗谷의 人性教育論」), 정연수(「율곡의 사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반성적 고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학계의 선행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 」, 「공부론의 관점에서 본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편(修己篇)의 체계 -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지준호(「율곡 이이의 도덕교육론」) 등의 논문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김민재와 정연수의 연구는 성리학 이론과 원전에 머무르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성리학 이론과의 연결점, 혹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고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성리학의 현대적 적용이나 재해석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이런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경세론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2	김낙진	退溪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 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승대	홍계희(洪啓禧) 경세론(經世論)의 재지적(在地的) 기반(基盤)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4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5	김준태	浦渚 趙翼의 性理學說과 經世論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6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학과
7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 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8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9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0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1	정성희	"특집 1: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 : 磻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12	최성환	영 · 정조대 채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 의리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3	한지희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책선지도責善之道와 붕당 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14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 55	한국사상사학회

2017년도에 발표된 경세론 관련 연구는 학술지 논문은 12편, 박사학위 논문은 2편으로 총 14편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25편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2016년도에 경세론에 관련된 박

사학위논문이 5편으로 상당히 많았던 반면, 2017년에는 2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하지만 학술지 논문만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8편이 감소했다. 학술지 전체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이이에 대한 논문이 2편, 이황에 대한 논문이 2편이 있으며, 그 외에 기대승, 만회 권득기(晩悔 權得己, 1570~1622),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 잠곡 김육(潛谷 金堉, 1580~1658), 송시열, 반계 유형원(磻溪 柳馨遠, 1622~1673), 명재 윤증(明齋 尹拯, 1629~1714), 담와 홍계희(澹窩 洪啓禧, 1703~1771), 번암 채제공(樊巖 蔡濟恭, 1720~1799), 정재 유치명(定齊 柳致明, 1777~1861)에 대한 논문이 각 1편씩 있다. 2016년 경세론 관련 전체 논문에서 율곡(8편)과 정조(4편)에 대한 논문이 많았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어느 특정인물에 대한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조의 경우는 전년도에 철학적으로 특히 주목받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되었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세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율곡의 경우는 예년의 경향에 비해 분명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년도에는 경세론에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던 퇴계 연구가 올해에는 두 편 포함되었다. 물론 이런 비율은 퇴계 연구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약 5%)이며, 전체 수에서 퇴계의 절반 정도인 율곡은 여전히 퇴계에 비해 높은 경세론의 비중(약 10%)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경세론 측면에서 율곡을 다룬 연구가 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은 특징적이다.

전체 논문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6세기 활동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총 5편, 17세기가 총 6편, 18세기가 총 2편, 19세기 총 1편이다. 총 14편 중 시기적으로 18세기 이전을 다루는 논문이 11편으로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분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6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원희	율곡의 사회국가론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2	노인숙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무실(務實) 지향적 특색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3	김낙진	退溪 李滉이 생각한 공동체의 원리와 실현 방법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	성해준	퇴계의 왜구대책과 화친유화(和親宥和)의 대일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5	권인호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시기적으로 16세기를 다루고 있는 경세론 논문은 총 5편이다. 인물로는 이황, 기대승, 이이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변으로 많이 연구되는 학자들이다. 이이의 경우 2016년과 마찬가지로 『격몽요결』이 그의 경세론을 분석하는 텍스트로 다루어졌다. 다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인물이 한정적이며, 제도를 다루는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17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한지희	명재明齋 윤증尹拯의 책선지도責善之道와 붕당 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	방상근	17세기 조선의 예(禮) 질서의 재건(再建)과 송시열(宋時烈): 현종대(顯宗代) 예송논쟁의 재해석	한국동양사상사연구 16(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3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김육(金堉)(1580~1658)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5	정성희	"특집 1: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 실학 : 磻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6	김준태	浦渚 趙翼의 性理學說과 經世論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17세기에 관한 논문은 총 6편이다. 17세기에 정치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윤증, 송시열, 김육, 조익 등을 다루는 논문이 많다.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담론에 머물렀던 16세기 연구와 달리, 김육과 유형원을 다룬 논문에서는 각각 대동법과 과거제처럼 특정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을 소개 · 분석하고 있다. 17세기가 대동법 정비와 같은 제도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 18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승대	홍계희(洪啓禧) 경세론(經世論)의 재지적(在地的) 기반(基盤)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2	최성환	영 · 정조대 채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 의리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18세기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총 2편이다. 18세기를 다룬 논문은 다른 시대를 다룬 논문과 비교해 볼 때, 그 대상 인물(홍계희, 체제공)들이 18세기 정치 일선에 있었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 내용 또한 성리학적 분석보다는 대상 인물의 생애나 성장 배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19세기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지은	19세기 定齋 柳致明의 현실인식과 경세론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5) 기타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호	공중누각과 율곡이이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경호	불온한 공감 – 존재의 사유, 너머 –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세정	퇴계 이황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4	김승영	철학적 비유와 상징 – 17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사유모형과 통합적 세계관 연구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윤경	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6	김윤경	북한의 율곡 연구 – 반동적 관념론자에서 선진적 사상가로	율곡학연구 35	(사)율곡연구원
7	김종성	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 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 함의 – 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3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박광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경(敬)사상과 평화실천 과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9	오철우	율곡의 성리학(性理學)과 선학(禪學)의 만남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10	王國良	李退溪的道德倫理觀念與現當代精神文明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1	윤천근	퇴계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1	퇴계학연구원
12	이기원	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13	이영호	南軒學의 수용을 통해 본 寒岡學의 새로운 이해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14	이원석	이항로의 천주교 비판과 그 존재론적기초	『대동철학』 79	대동철학회
15	전세영	퇴계의 질병에 대한 고찰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정도원	양촌 권근의 역사의식과 주자학 이해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17	정성식	정포은과 정삼봉의 철학사상과 현실인식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18	조남욱	이퇴계의 인생철학과 그 현대적 수용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19	추제협	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 영향	국학연구 33	한국국학진흥원
20	황인옥	훈민정음에 반영된 의리학적 역학사상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論語)』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22	신재식	"일반 : 조선 후기 지식인의 李光地 수용과 비판"	한국실학연구 34	한국실학학회
23	엄연석	상촌 신흠의 역학에서 상수역과 의리역의 상보적 특성	동양철학 48	한국동양철학회
24	이대승	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	한국실학연구 33	한국실학학회
25	이상호	『초기 퇴계학파 제자들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이해와 퇴계학의 심학적 경향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6	추제협	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영남학 60	영남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7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8	문석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9	권성훈	포은 정몽주 시의 원형상징	포은학연구 19	포은학회
30	손오규	퇴계시(退溪詩)의 공간인식(空間認識)과 산수관(山水觀)	퇴계학논총 30	퇴계학부산연구원
31	신태수	退溪『陶山雜詠』에 나타난 興趣生活과 生態論理	퇴계학논집 21	영남퇴계학연구원
32	이정화	퇴계시(退溪詩)에 나타난 학 주자(學朱子)정신(精神)연구(硏究)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33	이정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설리시(說理詩) 연구(硏究)	한국사상과 문화 88	한국사상문화학회
34	임희숙	조선 중기 문인들의 회화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미술사학과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5	조병수	牧隱李穡天人無間思想의 美學的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학과
36	김문준	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37	김현수	16세기 후반 – 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9	한국유교학회
38	도민재	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47	한국동양철학회
39	박종천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의 예학(禮學)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40	이남옥	남계 박세채의 예론과 고금절충론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68	동양고전학회

성리학 연구는 철학 · 역사 · 정치 · 문화 · 예술 등의 다양한 범위에 두루 걸쳐져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앞서 살펴본 이기론 · 심성론 · 수양론(및 교육론) · 경세론 등은 가장 전형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리학 연구의 전체 범위를 포괄하기도 어렵고, 또 특정 범주에 해당시키기에 애매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이 기타의 범주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징 역시 다양하다.

먼저, 전형적인 성리학 연구에 가깝지만 앞서의 범주에 정확히 소속시키기 어려워 기타 범주에 포함된 경우들이 있다. 정도원(「양촌 권근의 역사의식과 주자학 이해」), 추제협(「이익의 격물설에 나타난 윤휴와 이만부의 사상적영향」), 김윤경(「19세기 조선성리학계의 양명학 비판 양상 – 이진상(李震相)과 전우(田愚)의 양명학(陽明學) 비판 비교를 중심으로 – 」)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경학적 · 문헌학적 · 사학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철학적 성격이나 연관을 동시에 지니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상호(「『초기 퇴계학파 제자들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이해와 퇴계학의 심학적 경향」), 엄연석

(「상촌 신흠의 역학에서 상수역과 의리역의 상보적 특성」), 이대승(「서명응 선천학의 스펙트럼과 초점」), 문석윤(「『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에서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까지」), 추제협(「이황과 김인후의 「천명도」개정과 인간학의 정립」), 이기원(「기대승의 경서 이해와 인간 : 본원지향적 인간관과 학문」) 등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거나, 현대 철학의 쟁점이나 문제의식과의 연결점을 모색한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호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성리학 문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독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017년에도 이러한 방식의 논문을 2편 발표하였다. 먼저, 「공중누각과 율곡 이이」라는 논문은 소옹의 기상을 형용하는 말인 '공중누각'이라는 말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율곡 이이와 후학에게 인식된 양상을 검토하였다. 또 「불온한 공감 - 존재의 사유, 너머 - 」라는 논문에서는 기대승이 거론한 예시를 바탕으로, '불온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승영 또한 유사한 방법론을 시도한 논문(「철학적 비유와 상징 - 17세기 조선조 지식인의 사유모형과 통합적 세계관 연구 - 」)을 발표하였다. 김세정(「퇴계 이황철학사상의 생태론적 특성」)은 생태철학적 관점에 기반한 유교철학의 재해석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퇴계 철학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김종성(「행동조절에 대한 성리학과 뇌과학 이론의 현상학적 상통성과 의학적 함의 - 퇴계심학(心學)을 중심으로 - 」), 윤천근(「퇴계이황의 '감성철학' - '청량산'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등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예술이나 미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설리시(說理

詩)는 성리학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이다. 시를 중심으로 퇴계, 혹은 기대승의 사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4편(손오규, 신태수, 이정화 [2편]) 발표되었고, 회화관이나 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리학 사상과의 연관성을 탐구한 논문도 2편(임희숙, 조병수) 있었다.

이 밖에도 예학에 관련된 연구들이 5편 있었다. 그 중, 김문준(「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은 사계의 예학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사계의 예학이 경전적 근거보다는 인정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곱고 사계와 신독재 父子 간에 서로 이끌어주는 모습 자체가 모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현수(「16세기 후반 – 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는 율곡학파의 『가례』 주석서를 분석했는데, 특히 구봉의 『가례주설』과 사계의 『가례집람』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김현수는 구봉의 예학이 사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소략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가례』에 대한 두 학자의 주석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해서 구봉과 사계 예학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도민재(「高峯의 禮學思想 : 王室禮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는 王室禮를 중심으로 고봉의 예학을 검토했다. 그는 『의례경전통해』를 강조하는 고봉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宣祖의 친모 제사라고 하는 당시의 예학적인 논란을 배경으로 삼고 고봉의 입장을 밝혀서 고봉의 예학사상을 부각시켰다.

6) 단행본 학술서적

번호	저자	도서명	출판사
1	최영진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	문사철
2	김종수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 (서강학술총서 105)	서강대학교출판부
3	서명석	퇴율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	책인숲
4	정우락 외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 조선 중기의 낙중학 (낙중학 총서 3)	계명대학교출판부
5	홍원식 외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 – 조선 중기의 '낙중학' (낙중학 총서 4)	계명대학교출판부
6	안동대학교 부설 퇴계학연구소	퇴계학파의 사람들 – 16세기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문서원
7	김인규	조선시대 유학자의 학문관	다운샘
8	최재목	방법 · 은유 · 기획의 사상사	지식과교양(지교)
9	최재목	하곡 정제두의 양명학 – 강화의 지성	지식과교양(지교)
10	(사)방촌황희선생 사상연구회	방촌 황희의 학문과 사상 (방촌학술총서 2)	책미래
11	최석기 외	갈천 임훈의 학문과 사상	보고사
12	이용주 외	조선 유학의 이단 비판 – 이학집변을 중심으로 (국학자료 심층연구 총서 10)	새물결
13	오구라 기조 (조성환 역)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 리(理)와 기(氣)로 해석한 한국 사회	모시는 사람들
14	남명학 연구원	개암 강익(남명학연구총서 10)	예문서원

2017년에 출판된 조선 성리학 관련 단행본 학술서적은 총 14권이었다. 최영진의 저서(『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는 여말선초의 조선 성리학 성립 시기부터 조선 후기의 실학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성리학의 여러 주요 논제들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제시하며, 조선 성리학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정감에 대한 중시'와 '리의 하향화(下向化) · 외화(外化)' 현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김종

수(『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는 여말선초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김수온, 정여창, 임훈, 박세당, 박수검, 김이만 등의 인물들이 불교와 교섭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두 책은 2017년에 출간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서명석의 『퇴율공부법과 현대교육 비판』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계와 율곡의 철학과 교육방법론을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조선 중기의 낙중학』(정우락 외)과 『여헌 장현광의 삶과 사상-조선 중기의 '낙중학'』(홍원식 외)이 각각 낙중학 총서 3권과 4권으로 출간되었다. 김인규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학문관』을 통해 공자, 정몽주, 이이, 장현광, 안정복, 홍대용, 정조, 정약용, 김정희 등의 학문관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목은 은유의 방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사상사 · 문화사적인 독해를 시도한 저서(『방법 · 은유 · 기획의 사상사』)와 양명학과 정제두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저서(『하곡 정제두의 양명학-강화의 지성』)를 발표하였다. 현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기론(理氣論)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오구라 기조(조성환 역)의 저서가 번역 출간되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① 김현수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栗谷學派의 家禮註釋書 연구」에서 구봉의 『가례주설』과 사계의 『가례집람』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김현수는 구봉의 예학이 사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

족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가례주설』과 『가례집람』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구봉과 사계의 예학이 관계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현수는 "구봉왈"이라는 형식으로 사계가 구봉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유사성도 확인했다. 내용상의 유사성 확인은 자칫 침소봉대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김현수는 『가례』의 체계를 중심으로 두 주석서에서 인용한 항목의 일치 비율을 모두 조사해서, 두 주석서의 인용항목이 44%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양적 조사가 몇몇 구절을 근거로 드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성 검토에 있어 유의미하다.

② 김낙진의 논문인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사칠변증(四七辨證)』과 심법(心法) - 퇴계학과 율곡학의 심법 비교」는 성리학에서 이기론이 가지는 위상에 주목한다. 즉 리(理)와 기(氣)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性)과 정(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이후 심법(心法)이라 불리는 공부 방법 또한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또한 단순히 리와 기의 배속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심법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때문에 그는 우담의 『사칠변증(四七辨證)』에서 왜 우담이 율곡이 아닌 퇴계를 옹호했는지를 心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본문 첫 번째 목차에서 저자는 소종래(所從來)에 대한 율곡과 우담의 상이한 이해를 서술하였다. 율곡은 소종래를 마음의 두 근본으로 파악하고 마음이 막 발할 때 갈라지는 인심도심의 혹생혹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 우담은 소종래를 인심도심의 혹생혹원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우담은 하나의 마음에 대해서 인심, 도심으로

나누어 말하고 하나의 정에 대해서 사단, 칠정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마음이 막 발하는 시점, 즉 기미를 살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본문 두 번째 목차에서는 율곡의 정찰(精察)공부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율곡의 경우 살피는 공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하나는 막 마음이 발했을 때 기미를 살피는 것이고, 나머지는 발한 이후 부중절한 정을 단속하기 위해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곡의 '수양하는데 있어 성의(誠意)보다 우선한 것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성(誠)이 가지는 시간적 우선성을 설명한다. 저자는 성(誠)을 통해 공부에 돌입하고 이후 경(敬)을 해나가는 것이 율곡의 기본적인 심법이라고 본다.

본문 세 번째 목차에서는 이발(理發)체험을 바탕으로 우담의 율곡비판을 다루었다. 율곡의 '리(理)는 닦을 수 없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우담의 반박을 '인간이 기질(氣質)에 의해 본질성과 비본질성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리(理)를 닦아 활성화시켜야 됨'으로 이해하여 사칠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이발(理發)이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담이 도덕수양으로서 이발(理發)체험을 강조하고, 율곡은 이발(理發)보다는 기질(氣質)의 제어를 강조한다고 보았다.

본문 네 번째 목차에서는 앞서 말한 도덕수양에 있어 이발체험의 효용성인식 차이가 중인(中人)에 대한 관점차이에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율곡이 중인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질을 제어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담은 중인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단을 통한 이발(理發)체험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이 부분에 착안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율곡은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을 통해서 기질(氣質)의 제어를 중점적인 심법으로 보지만, 우담은 호발설을 바탕으로 막 발하는 기미에서 확충해야 할 사단과 제어해야 하는 칠정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한 심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사단칠정론 연구가 지닌 기본적인 단점들을 잘 지적한다. 그것은 첫째로, 사칠호발의 개념풀이에만 집중하여 입론자들의 본래 의도를 잘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기론과 심성론과 수양론의 유기적 연결을 사칠론 연구에서는 좀처럼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본 논문은 사칠론의 주요 개념인 소종래를 통한 이기분속(理氣分屬)의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원전을 바탕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소종래를 단순히 리와 기로만 나누고 구체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 논문은 심이 발동하는 과정에서 소종래가의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막 발하는 지점, 즉 기미라는 의미로 소종래를 풀이할 경우 그것이 정찰(精察)이라는 수양론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도 서술하였다. 이후 정찰(精察)에 대해서 우담과 율곡이 가지는 인식차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의(誠意)공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었으며, 또한 이러한 인식은 중인(中人)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여타 사단칠정론이 정(情)의 배속문제,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였던 점에 비해서, 저자는 사단칠정론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 이기심성과 수양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앞선 선행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이 사칠론이라는 주제에 적절한 접근이 되는 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칠론은 기본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배속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다른 논의들을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애당초 퇴계와 고봉은 수양론을 염두하고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인심도심논쟁 또한 인심과 도심을 통해 호발의 가부를 따져보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저자가 주로 거론한 인심도심종시(人心道心終始)를 기반으로 한 성의(誠意)에 대한 주장 또한 인도(人道)와 사칠(四七)의 구분을 위한 것이지, 성의(誠意) 공부 자체를 규정하려고 입론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의론은 기본적으로 사칠의 구분, 호발의 가부여부를 따지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거론된 수양론이나 이기론 또한 중심논의를 위한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었다. 그에 반해, 우담은 분명 기미를 살피는 것이 사칠론의 주요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저자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저자는 우담의 주장이 결국 퇴계의 심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사단칠정을 심법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담의 독창적인 특징임을 충분히 포착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퇴계 이후 남인들의 사칠론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③ 최영진의 『한국성리학의 발전과 심학적 · 실학적 변용』은 한국성리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학술서적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성리학의 중요한 논제들을 그 자체의 내재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면서,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반성한 실학도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변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내재적 발전의 주요한 특성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감에 대한 중시'이다.

곧, 정감의 도덕적 기능에 특별히 주목하고 그것을 이기론적으로 논증하는데 집중했다는 점이며, 이것은 성(性)에 치중한 주자의 심성론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성선(性善)을 넘어서서, 정선(情善)을 지향하는 사단칠정논변, 심선(心善)을 지향하는 호락논변과 심설논변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이 책에서 한국성리학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리의 하향화(下向化) · 외화(外化)'이다. 이는 초월적 실체인 리(理)가 인간의 성(性)으로 내재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현실적 도덕정감(사단)이나 심(본연지심, 심즉리)의 범위로까지 하향화 · 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주자의 인심도심설,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변, 율곡의 인심도심설, 조선 후기의 호락논변, 심설논변과 같은 조선성리학의 주요 논제들은 물론, 다산 정약용, 우담 정시한, 갈암 이현일, 노사 기정진, 혜강 최한기 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한국성리학의 일관된 경향을 도출하는 한편, 각 주제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료화하고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다.

④ 이선열의 논문인 「중화설의 전개와 율곡학파의 미발인식」은 유가철학이 규범적 행위의 실천보다 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의 완성이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윤리학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전제한다. 또한, 송대 초기 신유가는 마음의 고요함에 치중하는 '주정(主靜)' 공부법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유가 경전인 『중용』과 「악기」에서 마음의 구조를 동정(動靜)으로 나누고 '고요함'을 이상적 심적 상태로 여기는 사유에 근거 했다고 본다. 그런데 주희에 의해서 정(靜)공부와 동(動)공부의 균형

을 중시하는 사유로 전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희가 종래의 주정적 수양론 경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그의 이러한 수양론에 대해 17~18세기 조선의 율곡학파에서 '고요한 상태의 인간은 과연 그 자체로 순선한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박상현과 한원진, 송시열과 이현익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17~18세기 율곡학파의 호-락 분기 요인을 미발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 '시간상의 선재성'과 '도덕적인 본원성' 가운데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의 문제였다고 파악한다. 박상현과 한원진 등은 미발 개념을 철저히 청탁수박한 기질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렇게 볼 때 도덕적 본원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고 미발은 다만 '시간적 선재'의 개념에 국한된다고 한다. 그와 달리 송시열, 이현익 등은 미발이란 다만 고요한 상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재가 이루어지는 상태임을 강조하고, 미발을 수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일종의 '도덕적 본원성'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저자는 율곡학파 내부 논쟁에서 표출된 이러한 견해차는 호학과 낙학이라는 학파가 분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두 입장 모두 '마음의 고요함'을 액면 그대로 순선한 상태로 보는 기존의 수양론의 주정적 요소를 탈피하는 면모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유가의 수양론적 경향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적 이론들의 전변과정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유가 수양론의 주정적 경향이 주자의 중화설을 거쳐 조선의 율곡학파가 분기되는 단초가 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흥미롭게 느껴진다. 저자의 논증이 타당하다면 조선 후기 주자학의 변형 내지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주

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순자계통의 유가가 예(禮)를 강조하여 적극적 행위, 실천적인 수양을 강조하였음은 물론이고, 또한 주희나 조선성리학자들 역시 미발함양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이 예의 실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가의 주정적 경향의 의미와 범위가 좀 더 자세히 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⑤ 배제성의 「호락논쟁에서 명덕(明德)의 쟁점화 과정 연구 - 외암(巍巖) 이간(李柬)의 심(心)과 기질(氣質)의 분변(分辨)을 중심으로」는 조선 후기 성리학계 학술논변의 주요한 개념인 명덕(明德)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쟁점화가 되었는가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명덕 관념이 조선학계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한 시발점을 호락논쟁, 특히 외암 이간(巍巖 李柬, 1677~1727)의 심과 기질의 구분에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의 본문은 크게 ①외암의 심(心)과 기질(氣質)을 분변한 까닭과 그 의의, ②외암에 의해 명덕이 쟁점화 되는 과정, ③이후 '명덕분수(明德分殊)' 논쟁으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외암이 "심과 기질을 구분한 핵심적인 의의가 심이 혈기와 기질을 주재하는 데 있다"(94쪽)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혈기와 기질을 주재하는 심을 설명하기 위해 외암이 명덕(明德)을 심과 동일시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심시기(心是氣)라는 기호학맥의 대전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기질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심의 위상을 정립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암에 의해 명덕이 쟁점화가 되면서 심과 명덕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호론계가 낙론계의 입론에 대한 해명의 연장선상에서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과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 사이에서 전개된 '명덕분수(明德分殊)'에 대한 논의를 분석

하였다. 논자는 호락논쟁에서 쟁점화된 명덕 개념은 심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며, "기(氣)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주재자이며, 수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심의 위상을 고민하고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 명덕은 최적의 화두가 되었다"(108쪽)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학계 학자인 미호 김원행(渼湖 金元行, 1702~1772)의 「명덕설의문(明德說疑問)」을 소개하면서 명덕 관념이 성리학자에게 화두로 대두되는 단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논문의 특징은 지금까지 주로 미발시(未發時)의 성(性)의 순선성과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등 주로 성(性)을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고 연구되던 호락논쟁의 전개 양상을 심(心)의 측면에 주목하여 논변의 양상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 외암이 명덕을 쟁점화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에 자극을 받은 남당과 병계의 명덕분수 논의를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성리학 내부에서 상충하는 견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심(心) 관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심시기(心是氣)라는 대전제를 견지하였던 기호학계 내부에서 명덕 관념이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정합성 있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性) 중심으로 평가되던 호락논변의 의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본 논문은 18세기의 호락논쟁에서 19세기의 심설논쟁으로 이행되었던 과정을 유기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호락논쟁과 심설논쟁을 조선유학사의 흐름상에서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다는 논자의 시각은 인간의 구체적 정감과 그 원리에 대해 치밀한 논의를 전개하였던 조선성리학계의 성격과 의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다만, 본 논문의 키워드 중 하나인 명덕분수(明德分殊)의 경우 저자

는 본문에서 개념어, 혹은 쟁점으로 해당 어휘를 분수(分殊)라고 표기하였지만, 본 논문에 인용된 원전에서는 모두 분수(分數)로 표기되어 있다. 두 한자어가 일견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어대사전』에서 분수(分殊)는 구분, 구별로 풀이되는 반면, 분수(分數)는 규정인수(規定人數), 분임직무(分任職務) 혹은 구분배치(區分部署)로 풀이되어 별개의 어휘로 간주되고 있다. 원전에 표기된 어휘와 다른 조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논자의 설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⑥ 조성산은 「18세기 노론 지식인 양응수(楊應秀)의 화담학(花潭學) 인식」에서, 화담의 학문이 낙론 계열에 영향을 주었음을 전제하고 낙론 계열의 양응수가 화담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는 양응수가 혈기(血氣)와 구분되는 신기(神氣)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본연지기(本然之氣)를 긍정했던 당시 낙론 계열 학자들과도 다른 측면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낙론 계열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설명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의 측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예컨대 저자는 "이황은 주지하듯이 현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근원적 원리로서의 리를 중시하였고, 기에 대해서는 이 리의 선한 발현을 굴절시키는 요소를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이럴 경우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관점에서 리와 기의 대조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기의 담연성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p.388)고 했다. 반면 양응수의 스승인 권집에 대해서는 기(氣)와 질(質)을 물과 그릇으로 비유한 대목을 인용한 뒤, 차별이 생기는 요인은 질(質)이고 기(氣)는 동일하다고 보고 기통질국(氣通質局)이라고 칭했다.(pp.387-388) 그리고 권집의 이러한 면은 퇴계와 다르고 율곡의 이

통기국과도 다르며, 화담과 가깝다고 보았다. 하지만 저자는 퇴계와 율곡을 논할 때는 리(理)와 대비되는 기(氣)를 거론했고 권집을 논할 때는 질(質)과 대비되는 기(氣)를 논했다. 비교대상이 다르므로 기氣)의 동일함이 화담만의 특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율곡은 기(氣)가 세상에 편재해있다고 여겼으므로 기발(氣發)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 논할 때도 본연지기(本然之理)를 따르는 본연지기(本然之氣)를 상정했으므로, 율곡의 경우에도 본연지기(本然之氣)는 차별 인자가 아니라 동일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율곡이 화담의 담일청허지기(湛一淸虛之氣)가 모든 사물에 편재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양응수는 담일청허지기가 바로 신기(神氣)이고 리의 묘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인용했다.(p.393) 이 대목만으로는 리의 묘용이라는 점에서 본연지리를 따르는 율곡의 본연지기와 유사성이 보인다. 율곡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화담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인용문 이후에 율곡의 본연지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대목까지 인용했다면 이해에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5]

⑦ 권인호의 「高峰 奇大升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5 『白水集』 권5 「答林啓濬」: 栗谷所謂本然之氣, 與愚見有同處焉, 有異處焉. 所謂同者, 如栗谷與牛溪論四七書中所云人心道心, 俱是氣發, 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本然之氣也. 故理乘其本然之氣而爲道心焉, 氣有變乎本然之理者, 則亦變乎本然之氣也. 故理亦乘其所變之氣而爲人心, 而或過或不及焉者, 是也. 所謂異者, 如今賢之所引, 非若理之於萬物, 本然之妙, 無乎不在者, 是也. 竊嘗究其所以異者, 盖吾儒之說氣, 有欠細膩, 自古論氣質者, 徒知血氣之流行者爲氣, 形質之局定者爲質, 而不知血氣亦屬質而有善有惡, 血氣之中, 又有本然之氣, 純善無惡.

1)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을 밝힌 후 고봉의 정명론과 공의적인 민본사상을 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2) 조선 중기의 시대상황과 오늘날 한국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실 간의 유사성을 찾는다.
3) 조선 중기와 오늘날 민주사회의 유사성에 기반해서, 고봉의 사상을 통해 현대사회를 대동사회[6]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단계에 따라 논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해서, 저자가 어떻게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머리말에서 저자는 경세(經世)와 정치사상을 수기치인(修己治人)에서 치인(治人), 그리고 『대학(大學)』의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의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에 대해서 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목차 상으로 II장 '조선중기 사회정치적 상황과 민본적 정치사상'에서 다뤄졌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제목과는 달리 "민본적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주자의 「무신봉사」, 퇴계의 「무진육조소」, 남명의 「무진봉사」를 비교하며 설명하지만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루고 있을 뿐 이들이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II-2에서 유교 민본적 정치사상의 근원으로 공자의 정명(君君臣臣父父子子)과 정의(政者正也)를 지목하지만, 이들이 근원이라고 지목하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대신

6 초록에서 저자는 이를 '민주적인 대동사회'라 명명하였다.

내용의 대부분을 정명과 정의가 부재해 망했던 국가들과 현재의 사회 문제들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 이 논문의 큰 맹점이 존재하는데, 여타논문들에서 사용되는 '경세론', '민본사상' 대신 "경세론적인 민본적 정치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문 전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저자는 '경세론'과 '민본사상'을 단순히 엮어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고봉의 정명론과 공의적인 민본사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논문의 Ⅲ장인 '청백리와 출처(出處) 및 고봉의 민본적 정치 · 경세 사상'에서 여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Ⅲ-1에서는 조선에 청백리 정신이 있었고 고봉 또한 청백리였음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는 점 그리고 사단칠정논변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윤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Ⅲ-2에서 고봉의 「논사록(論思錄)」을 분석하며 그 경세론의 주안점인 경세택민(經世澤民)을 소개하고, 그의 경세론이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논사록」 일부가 남명의 「무진봉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봉의 경세론의 주안점이 경세택민이라는 점은 「논사록」 전반에서 확인된다. 또 고봉이 임금과 신하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명론과 연결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맹점과 같이, 저자가 규정하는 '공의적인 민본사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저자는 고봉의 경세론이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고봉이 「논사록」에서 『맹자』와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전 인용만을 가지고 그의 경학이 어떠한지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저자가 논

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경전 주석을 「논사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목표했던 바의 두 번째 목표였던, 조선 중기의 시대상황과 오늘날 한국 민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실 간의 유사성 찾기,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현대사회에서 대동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논문의 제목이 「고봉 기대승의 민본적 정치사상과 현실」이지만 저자는 논문의 전체 분량에서 고봉에 대한 설명보다 현재의 정치 문제나 과거 조선의 시대적 문제를 서술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논증 방식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다. "화해상생하지 못하는 모든 학문사상은 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도그마로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이미 그가 쏜 화살이 자기 이마에 꽂히기 시작한다고 본다.(61쪽)"와 같은 몇 몇 문장의 과격함을 제외하더라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저자는 논문에서 유학적 가치(正名, 爲民 등)에 벗어나는 가치관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들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의 부재가 과연 유학적 가치와 동일한 것인지도 문제이지만, 가치의 부재가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생각은 사회경제, 구조 등의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치우쳐 보인다. 또 다른 예로, 저자는 유교의 민본주의를 통해 대동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정작 그 연결성에 대해서는 논증하고 있지 않다. 다만 Ⅳ장과 맺음말에서 현대의 촛불집회가 조선의 간쟁(諫諍)전통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전통은 유교의 민본주의에 기원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민본주의를 통해 현대사회가 대동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

비적인 추론에 의존하여 논리적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된다.

⑧ 황상희의 「퇴계에서의 상제(上帝)와 이도설(理到說)에 관하여」는 퇴계사상에서 종교성을 표상하는 '上帝' 개념을 "태극을 시작으로 하는 '우주적 가족 공동체'에서 인간에게 천명을 내려주는 궁극적 실체로서,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따스함에 깃들어 있고, '관계'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주체의 서늘함에 존재하는 궁극적 실체"(165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上帝'로 표상되는 종교성을 통해 '四端'을 "상제가 내려주신 태극의 본성이 정으로 발현되면 형이상의 성선이 형이하의 정선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믿음"(167쪽)의 측면에서 '종교정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理到'를 "나의 격물이 이른다면 물격의 이자도를 믿는다는 퇴계의 신앙"(176쪽)으로 보고, "사단을 위해 극기의 집중을 오래하다 보면 그 사단이 저절로 움직여서 내게 이르러 나를 끌고 가는 것"(177쪽)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상술한 논지 전개를 통해 "퇴계의 理到는 한반도에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제의 종교성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며, 오늘날 사단을 통한 이도(理到)를 단지 가치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179쪽)라고 결론짓고 있다. 본 논문은 퇴계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퇴계의 여러 명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본문을 비롯한 결론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근본적 이유는 조선조 유학자들의 종교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논지를 전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퇴계를 비롯한 조선조 유학자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 서원에 배향된 성

현들을 모시는 것을 조상, 성현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았다.(159-162쪽, 175쪽 61번 주석 등) 조상과 성현에 대한 상례 · 제례를 곧바로 신격화라고 전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당시 유학의 여러 명제에서 인격신, 초월신적 개념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당대 지식인들의 행위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저자는 이를 쉽게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개념어 오용과 논리적 비약의 경향이 나타나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우선, 퇴계의 상제관을 서술하기 위해 "성학을 이루기 위해서도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자세를 강조한다"(162쪽)고 서술하면서 『성학십도(聖學十圖)』의 「경재잠도(敬齋箴圖)」에 수록된 주자 「경재잠(敬齋箴)」 원문을 인용한다.[7] 퇴계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경재잠」 본문의 "대월상제" 개념에 대한 퇴계의 해석이나, 퇴계 자신이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원용한 예시를 인용하지 않고 『성학십도』에 기재한 원문만을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이도'를 불교의 간화선과 비교하면서 "선불교에서 명상을 할 때 화두를 내가 잡는 내용이 있는 명상의 방식이 아니라 극기의 계속된 상황에서 어느 순간 화두가 나를 끌고 가는 내용을 죽인 형식"(176쪽)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화두가 나를 끌고 가는 내용을 죽인다"는 서술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물론, "화두가 나를 끌고 간다"는 서술이 과연 '이도'에 적합한 비유인가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아울러, '이도'를 정의하는 핵심 문단인 "사단을 위해 극기의 집중을 오래하다 보면 그 사단이 저절로 움직여서 내게 이르러 나를 끌고

7 『晦庵集』 卷85, 「敬齋箴」,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간다는 말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극기라는 긴 시간의 집중을 통해 나 스스로가 비워진 빈방에 밝은 빛이 생기는 경지[虛室生白][8]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177쪽)는 서술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견된다. ①정(情)인 사단을 '이도'와 무리하게 결합함으로써 '리가 이르다'는 명제를 '정이 이르다'라는 명제로 오해하도록 서술하였으며, ②"비워진 빈방에 밝은 빛이 생기는 경지"라는 비유는 퇴계의 주장을 비유한 다기보다는 율곡의 물격설에 가까우며,[9] 그마저도 물건이 가득 찬 방에 불을 밝히는 행위로 비유하는 율곡의 주장과도 합치되지 않아 성리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인물별/주제별로 2016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기 · 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3편, 약41%)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수양론 및 교육론(25편, 약 19%), 경세론(14편, 약 10%)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범주들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에 소속된 논문의 비중도 매우 높게(40편, 약 30%) 나타났다. 수양론 및 교육론의 전체 편수는 2016

8 『莊子』「人間世」, "瞻彼闋者, 虛室生白, 吉祥止止."

9 『栗谷全書』卷32,「語錄下」"又問, 物理元在極處, 豈必待人格物後乃到極處乎. 曰, 此問固然. 譬如暗室中, 冊在架上, 衣在桁上, 箱在壁下, 緣黑暗不能見物, 不可謂之冊衣箱在某處也. 及人取燈以照見, 則方見冊 , 衣 , 箱各在其處分明, 然後乃可謂之冊在架, 衣在桁, 箱在壁下矣. 理本在極處, 非待格物始到極處也, 理非自解到極處, 吾之知有明暗, 故理有至未至也."

년(33편)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황 연구에서 수양론 및 교육론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경세론도 전년(25편)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기타의 높은 비중에 대해서는, 성리학 관련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인물별 검토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졌다. 논문의 편수에서도 2016년과 2017년의 이황 · 이이 관련 논문의 수는 거의 동일했고, 2017년도 전체 비율에서는 대략 41%을 차지하였다. 논문이 양적으로 많은 만큼 이황과 이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성도 컸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년도와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경세론의 측면에서 율곡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율곡에 대한 연구에서 경세론적 측면이 두드러졌던 예년의 연구 경향과는 구분되는 점이다. 이황과 이이에 이어 기대승의 연구가 많았는데(8편), 이는 편수에서도 전년도(6편)에 비해 증가한 것이지만,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도 사단칠정론 이외의 주제로 다변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이진상(6편)과 전우(4편)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모두 심설논변에 관련된 학자들이다. 또한 한원진(5편)에 대한 연구도 2016년(8편)에 이어 많이 발표된 편이었다. 이는 주로 호락논변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경향으로 이간(3편)에 대한 연구도 여기에 관련된다. 추후 호락논변과 심설논변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 대한 관심이 더 유기적으로 심화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이래의 인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은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의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학자들의 경우는 매년 달라지는 양상을 보

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진상의 경우 2017년에는 6편이지만 2016년에는 2편이었다. 한편, 2016년에 6편이 발표되었던 우담 정시한에 관한 논문은 2017년에는 1편에 그쳤다. 이러한 변폭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또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 다양한 연구 대상과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황과 이이가 조선 성리학 연구의 확고한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아직 그러한 위치를 분명히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황과 이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확장적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조선 후기의 쟁점과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사유하기 위한 그 나름의 중심축이 좀 더 분명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심설논변의 쟁점과 문제의식을 사유하기 위해 이황이나 이이의 철학과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더 분명한 호락논변과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탐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들의 사상사적 위상이나 의미에 대해 더 심화된 탐구가 요구될 것이다. 물론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지만, 추후 그러한 바탕과 토대가 더 분명하게 확립되어가길 기대해 본다.